

글로벌 그린비즈니스 2009 개최

해외 유망 환경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기업과 연결해주는 <글로벌 그린 비즈니스 2009>가 10월21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비즈니스는 남미 5개국, 아시아·중동 10개국, 유럽·아프리카 5개국 등 20개국의 환경 프로젝트 발주처 책임자가 초청돼 40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소개된다.

발주처는 하수처리, 소각·매립 등의 폐기물 처리, 대기 모니터링 등 기존의 환경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해수 담수화 사업, 풍력 발전,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 26개의 환경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특히, 인디아의 뭄바이는 20억달러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스라엘 상·하수관리청은 5억달러 규모의 해수 담수화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일대일 개별상담을 통해 해외의 유망 환경 프로젝트를 수주할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수처리 관련 밸브 제작기업 삼진정밀은 페루의 건설주택부와 상하수도 기자재 공급 및 수처리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화학저널 2009/10/21>